



비전대 지적토목학과,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수상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학생들이 공간정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 금상과 동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지적토목학과 재학생들은 '3D 공간모델링 및 가상현실(VR)을 통한 창조관 탐방 서비스'와 '친환경 LED 요소를 접목한 야간경관 포스고 제작'이라는 작품을 발표, 화회로부터 4차산업혁명시대의 신기술을 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호평을 받았다.

작품을 지도한 이근상·김영주 교수는 "이번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발표한 작품들은 3D 모델링, 드론, 가상현실 기술을 학과 전공과 융합해 제작했다"며, "특히 국토교통부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간정보 동아리 활동이 수상에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적토목학과 이근상·김영주 교수는 재학생들과 공동으로 다양한 토지정보를 고려한 드론 영상 기반의 식생탐지 및 드론 영상 기반의 연안지역 지형변화 모니터링' 논문도 발표했다.

한편,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는 학생 28명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공무원 및 공기업 공채시험에 합격, 최근 4년간 117명이 공직에 진출했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 2022년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모집

남원시는 2022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2021년도보다 442명 증가한 총 3,837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남원시 노인 일자리사업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등 4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내년에는 사회서비스형을 28명 확대하고 신규사업으로 취업알선형을 추진, 어르신 소득증대에 따라 든든한 사회안전망 조성 및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방법은 12월 17일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봉장사본을 지참해 남원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남원시노인복지관, 남원시회복지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사업 수행기관을 직접 방문에 신청하면 되며,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20일 이후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노인장애인과(063-620-6634) 또는 각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인 남원시니어클럽(063-631-6049),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063-625-2086), 남원시노인복지관(063-625-9988), 남원시회복지관(063-632-5252)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우 기자



전북에너지서비스, 익산 500만 그루 나무심기 성공

익산시 제2산업단지에 위치한 전북에너지서비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에 동참했다.

전북에너지서비스는 29일 익산시를 방문해 '환경친화도시 푸른익산만들기'에 사용해달라며 (사)푸른익산기르기 운동본부에 성금 5백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500만 그루 나무심기'를 위한 나무 식재 사업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기우 대표는 "우리 회사는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수소 산업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이산화탄소 감소를 통한 친환경 도시 익산 만들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성금 기탁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기탁 배경을 밝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푸른익산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도시를 만드는 일에 많은 개인과 기업 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익산=이득훈 기자

'디딤씨앗통장' 3억6천여만원 적립

국민연금공단, 취약계층 아동 자립 지원 후원금 아동 권리보장원에 전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29일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 지원 후원금을 아동권리보장원(윤혜미 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유족연금 수급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자녀 등 국민연금 미래 가입자의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디딤씨앗통장'은 만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에서 1:1 매칭 지원금을 월 5만 원까지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의 사회 진출 초기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국민연금카드 발급에 따라 조성된 사회공헌 기금으로 유족연금 수급 아동 등 총 610명의 '디딤씨앗통장'에 향후 1년 동안 매월 5만 원씩 적립할 예정



이다. 특히, 올해는 매칭 지원금이 1인당 월 최대 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7천 3백만 원이 늘어난 3억 6천 여만 원을 후원한다.

공단의 후원금과 정부의 매칭 지원금을 통해 연간 총 7억 2천 만 원 상당의 금액이 제공되어 사회 진출 시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13년부터 '디딤씨앗통장' 지원사업에 꾸준히 참여하여 지난해까지 취약계층 아동 총 5,799명에게 약 24억여 원을 후원해오고 있다.

박정배 기획처장은 "이번 후원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사회공헌을 통해 ESG 경영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전북대 약대, 전북약사회와 학생 실습운영 협약

전북대학교 약학대학(학장 채한정)과 전라북도약사회(회장 서용훈)가 약학대학 학생들의 지역약국 실무실습 운영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29일 전북대 약사회관에서 채한정 약학대학장과 서용훈 전북약사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전북대 약학대학 실무실습 교육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



다. 서용훈 회장은 "전북대 약학대학의 첫 지역약국 실무실습을 앞두고 협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의 많은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채한정 학장은 "약사회와의 협력으로 약학대학 학생들이 지역약국 실무실습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게 됐다"며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전문가, 생명존중의 약료서비스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농협, 소외계층 지원 '나눔축산운동' 펼쳐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동진강나눔축협(조합장 김투호)은 29일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나눔축산운동 행사를 실시했다.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나눔축산 행사에는 장경민 전북농협 부분부장, 김투호 동진강나눔축협 조합장 등이 참석해 4백만 원 상당의 국내산 육우 불고기세트를



전달하며 나눔축산운동의 뜻을 함께했다.

김투호 조합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축산인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고자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

로도 나눔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려운 이웃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성 기자



남원여성새일센터, 취업자 멘토링프로그램 실시

남원여성새일센터(센터장 정남훈)에서는 2021년 새롭게 취·창업한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고용유지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멘토링사업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직장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대상자들을 해당 직종 선 취·창업자인 멘토와 연결하는 12팀(24명)으로 멘토링 팀을 구성하고, 지난 9월부터 이달 까지 총 3개월간 멘토링을 실시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 멘토링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각 상담사별로 2개 팀을 운영하여 한 달에 한번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멘토와 멘티가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는 활동으로, 해당 직종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멘토를 연결, 실무노하우 및 알?가정 양립의 고충상담, 조직문화이해, 멘티 응원 및 지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남원=김기우 기자



하림, 나눔 캠페인 익산시에 1억 상당 제품 기탁

(주)하림이 희망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익산시에 1억원 상당의 자사 제품을 기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저소득층 가정과 불우이실 등에 사랑의 온정을 전해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하림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연말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더 미식 장인리엔 세트로 준비했다.

전달된 제품은 익산시와 협조해 목격노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오는 30일에는 전주KBS, 사랑의 열매, 현대자동차와 함께 손을 잡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랑의 갈비탕' 나눔 행사에도 참여한다. /익산=이득훈 기자

우석고 유도부 정재훈 감독, 한국선수단 감독 선임



우석고등학교 유도부 정재훈 감독(전북체육회 이사)이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단 감독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29일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레비는 베이루트에서 열리는 '2021 아시아 유·청소년 선수권대회' 한국 선수단 감독으로 정재훈 이사가 파견됐다.

이 대회에 국내에서는 11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데 도내에서는 장성훈(우석고) 선수가 포함됐다.

한편 한국 선수단은 이날 출국, 다음달 5일 귀국한다. 정재훈 감독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상없이 선수들이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북사대부교직원·학생, 금암동에 연탄봉사

전주시 금암동(동장 최덕운)에서는 지난 27일 전북대사대부교(교장 채선영) 교직원 및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관내 취약계층을 방문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연탄 봉사는 전북대사대부교 학생자치회 및 교직원들은 1개월간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준비한 연탄 1100장을 관내 취약계층 세대에 직접 배달하는 봉사활동으로, 전북사대부교 교사와 학생 등 23여 명이 참가해 금암동 취약계층 4가구에 연탄을 전달했다.

봉사에 참여한 이일주 학생(전북사대부교 2학년)은 "힘든 연탄 봉사활동이지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함께 나누는 행복과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알게 되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채선영 전북대사대부교 교장은 "주위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학생과 선생님들이 직접 연탄을 나르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더불어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기쁨 그리고 행복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덕진동 주민자치회·새마을부녀회, 김치 나눔 봉사

전주시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송항용)와 새마을부녀회(회장 성귀남)는 이웃돕기 나눔의 일환으로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사랑의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김장 봉사에서 덕진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새마을부녀회·협의회 및 덕진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려 김치 400포기를 담가 관내 불우이웃들에게 전달했다.

송항용 주민자치위원장은 "이번 김장 봉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로 더욱 소외되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윤성 기자



유튜브 찌니트립,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유튜브 '찌니트립' 제작진이 29일 전주시 광화동 주민센터(동장 김현욱)를 찾아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시술권을 전달했다.

찌니트립은 영화 알라딘의 주인공 지니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유튜브 채널로 찌니트립은 치과병원과 의료기관 등의 후원을 받아 지역 내 거주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임플란트 및 보청기 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이번에도 찌니트립에서는 전주제일치과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생활형편이 곤란한광화동동의 저소득 어르신이 치과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임플란트 시술권을 지원했다. /김윤성 기자